

무안군, 미래농림축산수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미래 농수축산업 실현 위한 현안 과제 논의 “지역 현실 맞는 정책 농업인들과 만들 것”

무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래농림축산수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관조성사업과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대책 실행방안, 미래 농업 발전과 농정 혁신을 통한 농어업

인 소득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산 군수를 비롯한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관조성사업 작목 선택과 소득 연계 방안, 양파수확기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사

향, 미래 농수축산업 실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임정모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은 “각종 농정 현안과 미래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김산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협의회가 더욱 발전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농협, 임협, 축협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정



책은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의회, 무인 종합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는 의회 청사 3층 입구에 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로, 관공서·은행·식당 등 여러 공공장소에 설치돼 대중들에게 각종 정보 전달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함평군의회는 키오스크를 통해 의회의 연혁과 기능, 의원별 활동사진, 의정활동 영상, 보도자료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냄으로써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군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의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 임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통수식 개최

신안군은 임자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5월 10일 임자면 진리광장에서 임자 주민들과 함께 통수식을 가졌다. 임자면은 기존 상수원지의 담수량이 적어 약간의 가뭄에도 심각한 식수난에 고통을 겪는 지역이었지만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업은 총길이 11.6km의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원(국비 50, 지방비 22)이 소요되었으며, 2016년 9월 공사 착공 후 4년 7개월만인 지난 4월 완공되어 임자 주민 1,621세대 3,266명에게 일일 2,700ton의 맑은 물을 공급하여 가뭄에도 식수 걱정이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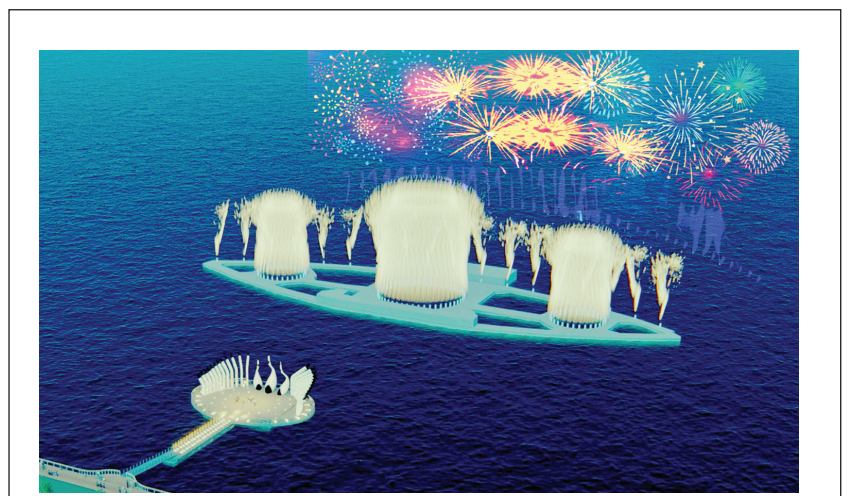
영암군, 문화재 활용사업 구림마을 증가여행 첫발

2200여년 역사·전통 간직...오는 11월까지 운영

영암군은 전라남도 증가회 영암지부와 함께 오는 5월 15일부터 11월까지 영암 구림마을 일원에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영암 구림마을 증가여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암 구림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곳곳에 숨어있는 마을이야기, 사람이야기, 나무이야기, 건물이야기 등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암 구림마을은 22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450여년 전통의 대동계가 현존하며, 백제 왕인박사, 신라말 도선국사, 고려초 최지몽 선생, 1555년 을묘왜변

(최경창), 1589년 기축옥사(조기서), 1592년 임진왜란(박동량), 1593년 이순신을 도운 연주현씨, 조선 후기 실학의 새로운 싹을 틔운 박세채와 박태초 등이 있었고, 3.1독립운동 때 의기를 모은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구림마을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영암군의 문화유산 중 약 40%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문화유산 보고이다. 또한 남주최씨, 함양박씨, 장녕조씨, 해주최씨, 연주현씨 등 대표 다성씨가 살고 있고, 인근에 반남박씨, 천안전씨, 남평문씨 등이 있어 성씨별로 문중과 관련된 여러 유적이 전하고 있다. 영암 죽정마을 뿐만 아니라 조승

수 종택, 고죽관, 회사정, 죽정서원, 죽림정, 호은정, 간죽정, 대동계사, 옥우당, 국사암, 국암사, 도갑사 등 많은 문화유산과 함께할 수 있다. 국보 제76호 이순신 장군-현덕승 간고교 간서간첩의 글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새겨져 있는 이순신 장군 어록비가 있어 호남의 정체성과 역사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50여 개소의 한옥 등의 민박촌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증가를 찾아가며 구림마을과 죽정마을 돌담길을 따라 한가로운 거닐며 마을을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구림마을에서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해상판타지쇼 7월 막을라 바다분수+공연+불꽃쇼 선보여...11월까지 토요일 운영

목포시는 오는 7월부터 평화광장 앞바다 해상무대에서 해상판타지쇼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상무대는 면적 490㎡ 규모로, 평화광장 육상부와 해상무대는 다리로 연결된다. 지난 10일 목포 삼학도 남향 앞바다에 도착했으며, 이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해상무대에서 외부 공연단체와 지역 예술단체, 시립예술단체 등을 통해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판타지쇼 상정곡을 제작해 바다분수, 불꽃쇼와 연계된 공연을 연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되는 바다분수쇼에 해상무대 공연과 불꽃쇼가 추가되면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판타지쇼는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5회에 걸쳐 펼쳐진다. 해상무대가 설치되는 평화광장은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이 펼쳐지는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시는 평화광장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평화광장은 낮에는 잔잔한 파도와 살랑이는 바닷바람 속에서 호젓한 분위기를 느끼고, 밤에는 목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활기넘치는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변모할 것이다”면서 “토요일에 목포를 가면 흥미로운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읍면 국비 300억 공모신청



영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영광군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5월 10일 월요일 14시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보고회는 김준성 영광군수 주재로 군의회, 실과소장, 읍면장, 외부전문가 등 31명이 참석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계획, 과업수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농식품부가 검토하여 통합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에 필요한 사업계획이다. 이에 영광군은 11개 읍면을 동부 및 서부 생활권으로 나눠 5년 단위 국비 300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지역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